

나주혁신도시 버려진 땅 ‘호혜원·월산제’ 이제 보석된다

농식품부 주관 250억원대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2027년까지 지역 특성 반영한 공간 정비사업 추진

빛가람(나주)혁신도시와 인접한 옛 한센인 자활촌 호혜원과 농업용 저수지로 용도를 다하고 폐기된 월산제가 지역의 미래발전을 이끌 소중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 산포면 호혜원과 일대 월산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2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폐축사 등의 유휴시설을 정비하고 정주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공간의 재생을 이끄는 것이 목적이다.

오는 9월부터 기본계획 추진에 착수하고 이후 시행계획 수립, 실시계획, 공사착공 순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준공은 오는 2027년을 목표로 250억원(국비 50%·도비 15%·시비 35%)의 예산이 투입된다.

나주시는 공모 도전에 앞서 지난달 25일 자체 사업 용역보고회를 열고, 대규모 가축 사육단지로 용도를 다한 호혜원과 용도 폐기된 농업용 저수지 월산제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했다.

과거 축산 악취 유입으로 혁신도시 정주환경을 크게 위협해 온 호혜원은 나주시가 지난 2015년부터 폐업보상 추진을 통해 가축과 축사를 포

합한 지장물까지 보상을 완료했지만 토지 보상은 예산 확보 문제로 추진하지 못했다.

퇴적층 준설 이후 내대지 상태로 방치된 월산제는 농어촌공사 소유로 나주시가 공간 정비를 위해 부지 매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혜원의 경우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노후 주택과 축사 등을 전면 철거하고 농촌테마공원과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특히 상당 면적의 부지는 월산제와 함께 한국에너지공대와 연계해 유치를 추진할 예정인 초강력 레이저터부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혁신도시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도시 확장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마을 주민 대부분이 이주한 호혜원은 지난 1946년 한센인 370여 명이 정착해 조성한 자활촌이다. 과거 주민 대부분이 양돈업에 종사했으며 나주혁신도시와는 600m 떨어져 있다.

폐업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돼지·소·닭·염소 등 가축 14만 628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가축분뇨 악취가 혁신도시로 유입돼 한때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의 대상이 됐다.

/나주=서철환 기자

장성 경력단절여성 ‘바우처카드’ 지원

1인 1회 20만원 상당 취업 준비 비용

장성군이 7월 한 달간 출산, 육아 등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 준비 비용을 1인 1회 20만 원 규모로 지원하는 ‘경력이음바우처카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력이음바우처카드는 생애 1회 한해 2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며 취업준비 도서 구입, 취업강좌 수강료, 면접 준비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

등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단,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등 유사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제도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며,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NH농협 장성군지부에 직접 방문해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으로 관내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면서 “지원 희망자는 8월 1일까지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해남, 김·전북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준공

가공시설, 연구·홍보시설·냉동보관시설 등 구축 마케팅 6차 산업화 본격 추진...수출선도 해외시장 겨냥

해남군은 28일 평광해남 식품특화단지 내에서 수산식품 거점단지 준공식을 가졌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연면적 7455㎡로 김·전북 가공시설과 연구·홍보시설, 냉동보관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수산식품 연구와 가공보관을 위한 복합단지로, 해남군 대표 수산물인 김과 전복을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으로 개발생산하는 기반 시설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2018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9년부터 3년간 국비 75억원 등 총 150억원의 사업비

를 투입했다.

군은 전국 최대 주산지인 돌김과 전복 등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소득증대와 함께 상품개발과 가공, 마케팅을 융합한 6차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거점단지에서는 기능성 김과 김자반, 전복 등을 가공하고, 수산물 고급화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제품 생산은 물론 수출선도형 복합거점단지로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단지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김동주 기자

거점단지를 운영하게 될 수협에서는 거점단지 준공을 계기로 신규 인력도 채용할 예정이다.

준공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해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와 수협중앙회 관계자를 비롯한 수산관련 단체장, 지역 어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명현관 군수는 “돌김과 전복은 전국 생산량 2~3위를 차지하는 해남군의 대표 수산물로 이번 거점단지 조성을 계기로, 단순가공에서 벗어나 기술의 존경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산 가공식품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군에서도 수산식품산업 전략 육성 과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남=김동주 기자

보성, 다양한 신소득 아열대 작목 육성

기후변화 대응 바나나·파인애플·백향과 등

보성군은 최근 5년간 애플망고를 시작으로 바나나, 파인애플, 백향과 등 다양한 신소득 아열대 작목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보성군에는 애플망고 1.0ha, 바나나 0.3ha로 아열대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바나나의 경우 친환경으로 올해 약 40톤 이상의 수확을 앞두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탓에 아열대 작목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아열대 작목으로 작목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농가들을 비롯하여 특히 귀농 귀촌인들을 비롯한 젊은 층의 관심이 뜨겁다.

보성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아열대 작목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아열대실증포를 운영해 파인애플, 애플망고, 백향과, 용과 등 다양한 아열대 작목 실증재배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가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 맞는 맞춤형 재배기술 확립 및 보급으로 아열대 작목을 농가의 새로



운 소득원으로 성공리에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보성산 바나나와 애플망고는 7월 말부터 수확을 시작하여 8월 중 본격 출하될 것으로 보이며, 가격은 바나나의 경우 7,000~12,000원/kg, 애플망고는 30,000~40,000원/kg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성=장국도 기자

순천 “도서관에서 1박2일 어때?” 기적의도서관 스테이 운영

선착순 20명 모집... 내달 9일 이색 경험·마음치유 프로그램 진행

순천시는 오는 7월 9일 1박 2일 커뮤니티 여행 프로그램 ‘기적의도서관 스테이’를 운영한다.

‘기적의도서관 스테이’는 2023순천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순천이 가진 도서관 문화를 전국으로 소문 확대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1기 ‘기적의도서관 스테이’는 올해 성년을 맞이한 순천기적의도서관을 축하하고, 도서관을 건축한 故 정기용 건축가의 정신과 뜻을 배우며 참여자들이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크송 공연 ▲차운중 힐링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기 등 이색적인 경험과 함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풍성하게 꾸려졌다.

참여대상은 건축학을 전공하는 학생 및 도서관 관계자 10명, 일반 성인 10명 총 20명으로 선착순 모집할 계획이며, 28일부터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1인당 20,000원이다.

기적의도서관 스테이 참여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기적의도서관(061-749-8902)으로 문의하거나 순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천기적의도서관 관계자는 “기적의도서관 스테이는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시민들에게 힐링과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자는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여형식의 도서관 스테이를 올해 2회 정도 더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순천=조순희 기자

무안, 노후기관·장비·설비 대체사업 지원

원안예산 30척... 어업인 경영 개선·해양사고 예방 기대

무안군은 올해 연료비 절약과 어가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를 원안예산 30척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노후기관·장비·설비 대체사업은 저효율(육상기관 포함) 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어선의 안전과 복지 등을 위한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품목에는 해상용 디젤기관, 선외기 엔진, GPS플로터, 어군탐지기, 레이더, 양승기, 양방기 등이 포함된다.

군은 관내 어선어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사업대상자를 모집했으며,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7월까지 기관 대체 8대, 장비 보급 22대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자에게는 수협중앙회의 단가계약이 체결된 장비 금액의 60%가 지원되며, 군은 지난 2012년부터 10년간 총 14억 원을 투입해 225척의 어선에 기관·장비를 지원한 바 있다.

김산 군수는 “이번 사업이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안정적 조업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선보험, 어선원보험, 어업인보험료 지원사업 등 어업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태연 기자

곡성군 백세미, 3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캐거

곡성군의 대표 브랜드 쌀인 유기농 백세미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28일 밝혔다.

전라남도도는 전남 쌀 판매 활성화와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해마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농업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6개 전문 기관이 참여해 품종, 품질, 품위, 증속속 등 8개 분야를 엄격히 심사한다. 때문에 선정된 것 자체만으로도 맛과 안전 모두에서 높은 품질임을 증명받는 셈이다.



유기농 백세미는 구수한 누룽지향과 쫄깃한 식감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곡성의 대표 쌀이다. 단백질 함량이 5.3으로 낮고 도요식치미 85이상으로 밥맛

이 좋다. 또한 아미로오스 함량이 12±1%로 낮아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향과 식감을 장시간 유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맛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성 면에서도 뛰어나다. 백세미는 석곡농협으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100% 계약 재배를 통해 생산한다. 특히 계약 재배 단계에서부터 육묘, 이앙, 수확, 건조, 저장, 가공까지 전 단계를 GAP 인증시설에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곡성=이상석 기자

광양시 우수기 대비 하수도 점검·준설작업

광양시는 우수기에 대비해 광양시 일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하수도 점검과 준설작업을 실시했다.

시는 매년 우수기를 대비해 하수도 준설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 침수 취약지역과 상습 배수불량구간을 중심으로 6월 초부터 2주간 하수관로 11.0km, 하수도 시설물 220개소의 점검과 준설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태풍과 집중호우 시 침수와 배수불량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수시로 상태가 불량한 하수시설물을 유지 관리해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동필 하수시설팀장은 “우수기 대비 하수도 점검과 준설작업을 통해 배수불량, 맨홀 유풀 등 도시침수요소를 적기에 해소함으로써 우천시 도로, 가옥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이후에도 수시로 하수도 점검과 준설을 진행해 주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조순희 기자

여수시 2023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진학상담’ 운영

여수시가 2023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원서접수를 앞두고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상담’을 운영한다.

7월 9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 40분~오후 6시, 장소는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 상담실이다.

모집 인원은 관내 고3 학생 108명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참여 학생은 전문 강사로부터 1인당 90분간 개인별 적성과 역량에 맞는 대학, 학과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은 6월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yeosu.go.kr/edu>)에서 신청하면 된다.

개인별 상담을 위해 진학상담 기초자료(모집공고 참고), 학교생활기록부, 모의평가 성적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진학상담은 지역 학생들에게 대입전형 변화에 맞춘 성공적인 입시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여수=조일상 기자

화순 입업·산림공익직불금 내달 1일부터 신청·접수

화순군이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입업·산림 공익직불금(입업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받는다.

입업직불금은 산림의 지속적인 공익가치 증진과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입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 6월 30일까지 입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의 입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입업인은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지속적인 산림자원 관리, 교육이수 등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국·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휴경산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지 등의 산지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산지 소재 농촌외 지역거주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소유하고있는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 대상 산지가 2곳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군은 7월까지 신청을 받고 자격심사 등 조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 11월과 12월에 입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화순=주영현 기자